

四

以上記述한 傳珍島出土有段石斧와 瑞山出土有段石斧는 金元龍教授에 依하여 紹介된 慶州地方出土有段石斧와 同一樣式系로서 特異한 類型이라 하겠다. 西시베리아 出土의 有角石斧④와 東南亞細亞地域에 分布하고 있는 有肩石斧⑤와 우리나라에서 出土되는 有溝石斧⑥가 모두 柄을 裝置하기에 便宜를 얻기 爲한 構造라고 생각 되는 바, 이 有段石斧도 亦是 木柄을 附着하기에 必要한 特異構造라 하겠으니 곧 先端이 구부러진 木柄을 雙부와 直角으로 대고 段을 利用하여 곧으로 단단하게 동여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現今까지 그 出土例가 慶州·珍島·瑞山等地이니 이는 곧 韓國 西海岸과 南海岸의 地帶에 有段石斧가 分布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나가서는 太平洋岸地域과 島嶼等地 ⑦의 分布에 連結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註

- ① 光州博物館案内書 「石斧」 ①條 參照
- ② 拙稿 「瑞山地方의 先史遺跡發見」 (考古美術 第三卷 第九號)
- ③ 金元龍 「慶州地方의 一石斧」 (考古美術 第二卷 第四號)
- ④ 世界史大系 一 先史時代 「西シベ리아—西と東の文化의 影響」條 參照
- ⑤ ① 世界史大系 一 先史時代 「東아시아—인도의 新石器と의 關係—」 「東아시아—安南·カンボディア·ラオスの 遺跡—」條 參照
- ② 水野清一·小林行雄 編 考古學辭典 「有肩石斧, 九九九面—一,〇〇〇面」條 參照
- ⑥ 世界美術全集 二 「先史時代의 遺蹟遺物—石器—」條 參照
- ⑦ ① 金元龍 上揭註③
- ② 水野·小林 編 考古學辭典 「有段石斧 一,〇〇〇一面」條 參照

金陵 廣德洞 磨崖菩薩立像

鄭 永 鎬

慶北 金陵郡 甘文面 廣德洞 三區 炭洞部落 ① 水利組合앞에 石造菩薩立像 一軀가 遺存한다.

이 立像에 關하여는 아무런 記錄이 없는데 一九六四年 六月初旬 한국 일보社 芮庸海 論說委員으로부터의 傳聞②에 依하여 筆者는 上記 菩薩像의 存在를 알게 되었다. 그 후 調査의 機會가 없어서 궁금하던 차 지난 八月下旬에 善山地區踏査를 마치고 上京하는 길에 이 곳을 찾아 菩薩立像을 調査하였으므로 여기에 簡單히 紹介한다.

現在 廣德貯水池 堤防밑 川邊 西南쪽 山麓에 遺存하는데 이곳 洞民인 崔源大(三十二歲)氏나 柳東俊(三十六歲)氏의 말에 依하면 오래前부터 ③이 立像은 이 곳에 있어서 部落民들은 勿論이요 近方 여러 洞民들까지도 여기에 모여들어 年中 數次에 佛供을 드린다고 한다. 그러나 이 자리가 石像의 原位置인지는 알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면 東쪽 山谷으로 約一km 되는 곳에 文殊寺址④가 있다고 하니 或時 그곳에서 移安한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如何 現在의 여러가지 傳聞이나 이곳 周邊의 狀況을 綜合해 보면 相當히 오래前 부터 이 곳에 遺存하고 있는 것 같다.

山麓에 石築(高二 m 長十 m)을 쌓아



平平한 地를 만들고 그 中央部에 正南向으로 奉安하였는데 北쪽으로 約十度 기울어져서 石像의 兩側에는 石坦(一m×一·五m)을 마련하고 뒷쪽은 封土로서 支撐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下部 一m까지는 左·右·後 三面은 露出되지 않았다.

한편 柳東俊氏 말에 依하면 隣近에서 數年前에 洞民이 金銅佛像 一軀를 拾得하였다고 하나 現在 그 行方은 알 수 없다고 하며 筆者가 調査한 바로는 이 곳에 建物이 造營되었던 痕跡은 없다.

石像은 花崗岩의 自然板石 一面을 平平히 다듬고 浮刻한 觀世音菩薩立像인데 頭部와 天衣의 「레이리루」가 強하여 立體感이 顯著하다. 오랜 世月을 露天에 放置했던 까닭으로 全面에 靑苔가 甚하나 各部의 彫刻에 傷痕은 없다.

光背는 頭·身光을 具備하고 肩上部에서 兩區되었는데 內面의 間地나 周緣에는 彫飾이 없다.

머리에는 華奢한 三面寶冠을 썼는데 그 冠帶는 頭光面에까지 彫飾되었다. 眉間에는 圓孔속에 白毫가 陽刻되었고 兩眉眼과 鼻樑口唇 등이 整齊되어 圓滿豐麗한 相好인데 길게 느리워진 兩耳와 목의 三道가 어울려서 威嚴있는 印像을 주고 있으나 口唇과 양볼에 어린 微笑로 한편 慈悲스럽다.

通肩의 衣文은 兩腕에 걸쳐 流麗하게 線으로 흘렀고 胸前의 衣帶로 부터는 圓弧를 그리면서 臍前을 거쳐 兩膝 下部까지 길게 느리워졌으며 양쪽 발(兩足)은 彫刻이 完全하나 天衣자락이 길게 展혀서 露出되지 않았다.

그 밑은 埋沒되어서 構造와 彫飾을 알 수 없으나 左·右에 蓮莖이 二三瓣씩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仰蓮座가 마련되었으려나 그 밑에 蓮莖이 있지 않을까 짐작된다.

그리고 右肩上에는 一朵의 蓮莖이 있고 蓮蓬이 彫飾되었는데 그 意匠과 毛法이 注目된다.

手印은 右手를 胸前에 들고 中指와 母指를 잡아 現掌하였으려나 左手는 臍前에서 팔목을 꾸부러 五指를 늘어뜨렸다.

이 菩薩의 姿態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仰蓮座 위에 立直하고 華奢한 寶冠을 쓴 觀音菩薩로 頭身光을 兼備하였으려나 右肩上에 蓮莖 및 華紋을 彫飾하여 마치 一幅의 繪畫인 印象을 주고 있는 바라 하겠다.

豐麗한 相好와 寫實的이고 流麗한 各部 天衣의 彫刻美 그리고 均整된 全體의 몸매로 보아 年代는 統一新羅代로서 九世紀頃으로 推定되는데 그 造成은 當代의 優作에 屬한다고 하겠다.

實測值(cm)는 自然石現高 二三〇 幅 一〇〇 厚 六〇 菩薩現高 一二五 頭高 六二 寶冠高 三三 肩幅 五三 胸幅 三四 頭光幅 八三 埋沒된 下部를 發掘하면 혹 다른 遺構가 發見調査될지도 모르겠고 이 같은 繪畫의 類例는 아직 調査된 바 없으므로 앞으로 寺址와 더불어 再調의 機會를 갖고 싶다.

註

① 이 部落에 가는 길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金泉市에서 定期 버스를 利用, 善山直行道路로 約十三km 되는 甘文面 台村洞에서 下車하여 北쪽으로 난 廣德洞行 小路(시발택시는 다닐 수 있음)를 따라 六km쯤 가면 廣德洞三區가 되며 여기서 炭洞部落을 찾으면 된다.

또 하나의 길은 金泉驛前에서 一時間마다 出發하는 甘文面所在地 行合乘便으로 甘文에서 下車하여 廣德洞을 찾으면 되는데 이쪽 길은 步行距離가 멀다.

② 芮委員의 말에 依하면 一九六四年 五月末頃 이 곳 甘文面 三峯洞 太陽窩場主人인 朴五岳氏가 한국일보사에 申告해 왔다는 것이다. 그 內容은 「炭洞水利組合 앞에 石佛이 있고 여기서 五〇〇m쯤 떨어진 곳에 寺址가 있으며 碑石도 一座 殘存하는데 近來에는 善山面 莞田洞에 居住하는 金某氏가 점(占)을 친다고 하여 隣近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이다.

③ 廣德洞三區 炭洞部落 五八八番地에 居住한다는 이들은 屢代이 곳 에 살고 있는 바 祖父母님께서도 저 부처님께 불공드리면서 「옛날 고령적 부터 이 자리에 있었으려나 우리 祖上들이 여기에 佛供을 드려서 우리들을 낳았다」라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④ 文殊寺址라고 傳하는 相當한 畵의 절터가 있어서 現在도 數個의 礎石과 碑石一座가 있고 石築이 殘存한다고 하나 調査當時 暴雨로 이곳 踏査는 中斷하였다.

資料

法泉寺址石造光背

秦弘燮

原城郡教育廳의 申告에 依하여 지난 七月 現地에서 調査한 바 있는 이 光背는 法泉寺址의 一角에 傳하는 智光國師의 塔碑殿址에서 南方約四〇〇m 나지막한 稜線너머에 位置한 原城郡 富論面 法泉里 二區 六五九番地 이창호氏宅에서 發見되었다. 이 家屋은 一九六七年 四月二十五日에 立柱上 樑하얏는 바 부엌 바닥을 高루다가 地表下 約一尺 밑에서 發見된 狀態로 發見되었다고 한다. 다른 遺物은 없었고 이 光背에 달린 佛像도 發見되지 않았다고 한다.



法泉寺址石造光背地圖

이 光背는 寶珠形으로 全高 一四八cm 幅 一一cm 厚約二五cm로 完形으로 남아 있다. 밑에는 六六·五cm × 一四cm × 二〇cm의 長方形의 軸이 달려서 아마 佛像臺座에 끼워서 세웠던 것으로 推測된 다.

裏面의 狀態는 確認하지 못하였으나 表面에는 全面的彫飾이 加해지고 있다. 中央에 隆起線 二條로 圓形을 그리고 (徑六八cm) 그 안에 徑三四·五cm의 圓形 凸部가 있어 子房을 表示했을 뿐 다른 彫刻은 없다. 이 圓圈은 頭光임이 틀림 없고 그 밑 左右에 莖이 있는 草花形이 彫刻되어 外緣部와 區分하였으니 아마 身光을 表示한 듯 하며 頭光下部 즉 身光에 該當하는 部分에는 彫刻이 없다. 外緣部에는 火焰이 陽刻되었고 그 사이에 五軀의 化佛이 있다. 이 化佛들은 特色을 보이고 있으니 頂上의 化佛은 頭身 兩光을 갖추었고 飛雲臺上에 結跏趺한 坐像으로 降魔觸地의 手印을 한 如來像이다. 바로 밑에 左右로 있는 化佛二軀는 亦頭身 兩光을 갖추었고 臺座는 明確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나 左足은 跏趺座를 풀고 무릎 밑에 내려 놓았고 손은 合掌하여 姿勢가 모두 若干 안을 向하고 있다. 다음 兩軀는 頭光 中心에서 若干 밑으로 左右에 있는 바 姿勢는 大體로 바로 위의 化佛과 같으나 光背가 省略된 듯 하고 飛雲 위에 앉아 天衣를 날리고 있다. 이러한 形態를 볼 때 頂上에는 如來像을 그 밑에는 菩薩像을 다시 밑으로 飛天像을 配置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佛像의 크기는 頂上이 高二二cm 膝幅 九cm 下端이 高二〇cm 膝幅 一〇cm 인 바 이와 같은 配置는 보기 드문 特異한 樣式이라 하겠다.

唐津 安國寺址 出土 金銅如來立像

李殷昌

浮石寺 住持 任啓福氏는 金銅佛立像 二軀를 所藏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瑞山郡 浮石面 江堂里 出土 金銅佛立像이고 또 하나는 이곳에 紹介